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

이 숙 자
(서울동대문도서관 관장)

독서는 인간이 무엇이든 알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활용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독서자료, 독자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적활동이 상호 작용하는 사고(思考)과정이며, 단순한 지식·정보의 제공, 레저 생활의 추구만이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고 그래서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여 다가오는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창조적 인간이 되게 한다.

이번에 문화관광부가 “읽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펼치고 있는 「전국민 책읽기 운동」은 2000년대의 영상문화시대에 소홀해 지기 쉬운 책읽기를 장려하여 독서 활동에서 얻은 지식 정보로 자신의 생활과 창조적인 생산에 적응시켜 자신의 계발, 형성,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인간형성을 도와주는 정보활용의 교육 문화적 사회 운동이다. 이 운동의 본질은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책을 읽을 수 있게 자극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책과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전국민 책읽기 운동」은 단순한 이벤트나 일과성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홍보특별기획사업을 통한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독서기반조성, 각종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고 침체된 출판업계를 살리고, 21세기 문화, 정보화 시대의 문화시민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벌이고 있으며 이 운동을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도서관은 교육, 연구, 문화, 정보 제공의 기능을 전제로 독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공공기관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지식경제시대에 있어서의 도서관에서의 독서활동은 신지식을 창출해 내거나 모든 집단의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

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운동과 독서활동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나 성공하거나 지속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한마음으로 독서운동이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고 도서관별로 독서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확대·전개해 나가야 한다. 학교도서관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학도서관에서는 대학생들을, 전문도서관에서는 직장인들을,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서 생활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식·정보의 매체인 책을 가까이 하도록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이 “더 넓게, 더 깊게” 독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자료의 확충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이렇게 확충된 도서에 날개를 달아 국민 모두가 대출회원이 되는 대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만 된다.

지금까지의 기본업무 중심의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사서들이 이용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 도서관 이용에 대한 자극을 주고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끌여 들여야 한다. 이런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위해서는 일반열람실을 줄이고 자료실을 확대하고 각종 세미나 실을 운영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독서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이 생활화되면 독서 생활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본다.